

## 교과서와 함께 떠나는 기록 여행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꼭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대전 시내에 있는 한밭교육박물관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교과서·교육 전문 박물관입니다. 1938년 일제 강점기에 삼성초등학교로 개교해 1980년대 초까지 실제 학교로 쓰이던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2층 벽돌 건물입니다. 이후 저출산과 학령 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1992년 폐교된 뒤, 그해 1992년 7월 10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한밭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인정받아 2002년 8월 23일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50호로 지정되었을 만큼, 대전 교육의 살아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우진**  
경기 동작중학교 교사

어렸을 때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봐왔었던 것들이 교사가 되고 나니 하나하나가 큰 깨달음과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일제 강점기의 교과서와 성적표, 상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다시 생각하며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주었던 성적표와 상장에는 창씨개명으로 일본식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창씨개명은 1939년부터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고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내 전시물을 통하여 교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까지 그 아픈 역사 속에서 힘들지만 위대하게 살다 가신 우리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여러 종류의 태극기(등록문화재 15점)와 때 묻은 옛날 학용품을 보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박물관 밖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과 나무를 하나하나 여유롭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전의 정든 교실을 재구성해 놓은 것과 예전의 교과서를 다시 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설전시관에서는 고대로부터 일제 강점기 교육을 지나 조선시대 교육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6·25 전쟁 한복판에서도 교과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천막 교실, 노천 교실, 판자촌 교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을 보니, 폭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높은 교육열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수업을 3, 4부제로 운영하였고, 한 학급에 약 100명의 많은 학생이 공부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아주 어려웠던 우리의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실제 사용했던 교복과 모자, 배지, 가방, 필통, 지우개 등은 당시에 가난했던 지난날의 교육을 되새겨볼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자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제3전시실에서 보았던 다양한 전시 모형들에서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을 느낄 수 있었고, 몽당연필과 지우개, 각도기 하나까지도 알뜰하게 썼던 예전의 모습에서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던 절약 정신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를 본받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소중하게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한발교육박물관 내·외부 전시 - 황국신민서사지주

어전회의, 조선시대 안방, 사랑방, 서당, 필방 소개

이외에도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서원과 성균관에 관한 자료도 살펴볼 수 있었고, 조선시대 교육생활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모형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출생과 전통 혼례, 논 갈기, 발농사, 벼 찌기 등의 다양한 세시 풍속을 한눈에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 서당, 서원, 향교, 사부학당, 성균관 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모형으로 잘 전시되어 있어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내 관람을 하면서 한 가지 흥미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은 필방이었죠. 조선시대에 아이들은 글 읽기 외에도 붓글씨를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

방이라는 곳은 현재의 문방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방구(필방)가 과거에도 이렇게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야외전시실에서 보았던 늪혀져 『황국신민서사지주(皇國臣民誓詞之柱)』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가 느껴져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알다시피 황국신민서사는 일본이 일상생활 중에 서사(맹세)를 강요하는 말로써 황국신민화 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잔악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이외에도 교문지주(校門支柱), 맷돌, 연자방아 등 다양한 석조물과 수표, 십이지신상, 자격루, 측우기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황국신민서사지주는 전시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밖에 늪혀져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곳곳에 보이는 총탄 자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잔인했던 일제 정책을 증오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잔혹한 행위를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아픔과 정신적 고통이 느껴져 눈물이 났고,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 책임감에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박물관 밖에는 여러 옛 민속놀이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제기도 차보고 처음으로 굴렁쇠도 굴러보고,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밭교육박물관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상들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알고, 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교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즐겨 참여하는 문화 교실은 여러 가지 전통 공예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통문화 강의 및 실습을 하며, 체험 실습은 한지공예, 목공예, 토피어리 등의 다양한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내어 한밭교육박물관을 관람하고, 자녀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면 교육적으로 아주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의 다양한 교과서 및 교육 자료 전시물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다시 찾은 한밭교육박물관은 저에게 특별한 다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교과서와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올바른 역사관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도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교과서로 떠나는 기록 여행을 다녀온 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요즘 학생들이 우리 교과서의 소중함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자녀들이 우리의 소중한 교과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말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고 성장하면서 그대로 모방학습을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먼저 우리의 소중한 기록유산인 교과서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주말의 시간을 내서 교과서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함께 하는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한밭교육박

물관은 교육실에서 아주 유익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가족 화합 한마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교육 내용은 생활 다례 체험(다도 및 다과) 및 공예 체험(천연비누와 가족 액자 만들기) 등으로, 아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역사탐구교실을 열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아들을 위한 체험 중심의 다양한 유물 체험 놀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물체험 놀이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학습, 단위, 생활 모습, 민화 등 4개 체험을 주제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득하고 학습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밭교육박물관에는 상설 체험인 대전독도체험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독도의 소중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소개되어 있으며 동시에 독도 신문 만들기, VR 체험, 숨은 생물 찾기 등의 재미있는 디지털 체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독도체험관에서 우리의 소중한 땅인 독도를 제대로 알고, 이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독도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코스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교과서와 관련된 콘텐츠가 다양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인 교과서를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체험하면 많은 것을 느끼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하고 교육적인 체험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2025년 상반기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한밭교육박물관은 2029년 1월경에 다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새 박물관에서는 수장고를 비롯하여 전시실, 교육실, 체험실, 야외 체험 광장 등 아이들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실감형·체험형(VR) 시설을 더욱 보강하여 이제는 대

전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 전문박물관으로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새로워진 한밭교육박물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할 즐겁고, 유익한 교과서 체험 여행이 무척 기대됩니다. 

#### 필자 소개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일반사회교육학을 전공하였다.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특히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 <평택시정신문> 편집위원, <한국교총> 언론홍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는 <교육 & 여행> 칼럼니스트, 한국교총 현장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생님,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더 멋진 수업, 더 특별한 교실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실이 항상 재밌고 특별해야 하죠?

매일 먹는 집밥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

그저 일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실에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담담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겐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오늘도 교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모든 보통의 교사를 응원합니다.

● **지학사** X **학교 한줄**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7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 2024년 발행 부수 기준

Mirae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터처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